“혼란의 시대, 중요한 건 희망·사람”

불기 2569년 을사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시무식

진우 스님 불교의 사회 역할 강조
선명상 보급 국민운동 이어져야
포교·교육분야 혁신으로 내실
“종무혁신을 이루는 종무원” 다짐



조계종이 1월 2일 시무식을 갖고 불기 2569년 을사년 종무행정을 시작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이 2025년 시무식을 갖고 불기 2569년 을사년 종무행정을 시작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새해를 맞아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교역직·일반직 종무원들에게 부처님 법에 대한 확소한 신심으로 희망을 만들고, 함께 미래불교를 열어가겠다는 마음으로 종무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조계종은 1월 2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불기 2569(2025)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시무식’을 봉행했다. 이날 시무식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 후 진행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사회가 매우 혼란한 시기이지만 나를 둘러싼 현상은 언제든지 변하기 마련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분명히 인식하고 선명상으로 흔들림 없이 자신을 가꾸며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미래불교를 향한 큰 걸음으로 지난해 종단이 진력한 선명상 프로그램 보급을 통한 선명상 국민운동을 강조했다. 4월 1일부터 조직개편이 시행되며 종단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기틀을 바꾸는 만큼, 실질적인 업무 변화로 내실을 채워나갈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지난해 많은 공감을 받은 젊은 불교, 힘한 불교를 위한 각종 사회적 포교를 강화해야 우리사회 젊은 세대들에게 불교를 더욱 가깝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육 역시 전면적인 혁신을 준비해야한다고 피력한 스님은 “출가자 수가 줄어드는 반면, 부처님 지혜와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행자 교육 시스템부터 기본교육까지의 프로그램을 일대 혁신하는 방안 수립 △교육기관 조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수행자로서 위의를 갖추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복지분야의 질적 도약을 위한 목적기금 설계와 불교박람회, 국제선명상대회,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연등회 개최, 열암곡 마애불 모시기 사업 등 각종 종단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종무에 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진우 스님은 마지막으로 “변화와 혼란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과 사람”이라며 “부처님법에 대한 확고한 신심으로 희망을 만들어 가고, 도반과 함께 수행해 나갈 때 우리는 미래 불교를 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종무원에게 뱀의 해를 맞아 덕담하며 ‘궁사무척(孔蛇無尺)’의 의미를 전했다. 스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구멍 속 뱀이라고 한다면 종무원의 능력을 헤아릴 수 없으므로, 그 능력을 종단 발전을 위해 쓰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무식 참석 대중은 종무원조합 김다영 종무원이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사찰과 스님, 신도를 위해 정성을 다해 종무혁신을 이루는 종무원이 되겠다”고 발원했다.

“헌법 위배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대응”

특별법 저지 상임위원회 1차 회의
1월 2일, 공문 발송 경과 보고도
발의 김병기 의원실과 면담 논의

지난해 11월 7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발의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두고 조계종이 국회와 논의 단계별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헌법정신 위배하는 천주교 2027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주경 스님, 이하 특별법저지대책위)는 1월 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위원장 심우 스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입법기관과의 논의 경과에 상응하는 대책 수립을 예고했다.

회의에 앞선 지난해 12월 27일 중앙종회사무처는 특별법 발의 여야의원 66인에게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특별법의 위헌 요소 △종교 형평성 결여 문제 등이 담겼다.

중앙종회사무처는 공문 발송 이후 법안 대표발의자인 김병기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밝히며 “실무진을 조직해 면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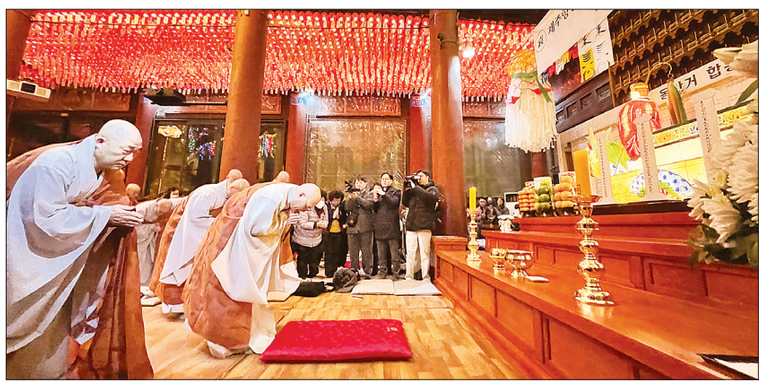
위원스님들은 면담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상임위는 실무진을 꾸려 보좌관과 만나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인 만큼 면담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세울 방침이다.

위원인 현무 스님은 “현재 법안은 문체위에 심사 회부된 상태로 아직 본격적인 논의 전 단계이니 면담 결과를 살펴본 뒤 대응책을 마련하자”며 “국회와 면담 이후 문체위와 면담까지 진행해 기관들의 대응을 확인하고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범불교적 대책위원회를 꾸려 전면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장 심우 스님은 “국회 심우회 의원 중심으로 위헌 요소가 다분한 법안을 밀고나가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느껴진다”고 염려했다. 이어 스님은 “조계종 원로의원 스님들과 교구본사 주지스님들도 이번 사안을 심려하며 차후 원로회의와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경과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종단 전반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위원스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가령 기자

진우 스님, 새해 첫 108배…여객기 참사 희생자 추모

1월 1일, 조계사서 신년 108배
제주항공 희생자 극락왕생 발원
“국가 난제 극복 염원 모으자”


진우 스님이 새해 첫날 조계사 에서 108배를 올리고 대웅전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추모 분향소에서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을사년 새해 첫날인 1월 1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108배를 올리고 국가 어려움을 풀어나가기 위해 마음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 그리고 조계사 사부대중과 함께 108배를 올린 직 후 대웅전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추모 분향소에서 향을 올리며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새해 법문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한 진우 스님은 대중들에게 국가적 난제 극복을 위해 기도와 염원을 멈추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잡을 것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무안을 찾아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면서 “향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남은 우리들이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자들은 부처님법과 가르침에 따라 실천한다면 을사년 올 한 해 당면한 난제와 숙제를 풀어나가는 데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욕심을 내려놓고 육바라밀을 실천할 것을 당부하며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는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을 강조했다. 스님은 “욕심은 반드시 그 과보가 따르며 이는 다툼과 전쟁으로까지 이어진다”면서 “새해에는 업장 소멸을 위해 매일 하루 5분이라도 선명상을 하고, 기도하고,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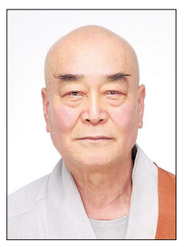
금강경의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를 언급하기도 했다. 스님은 “그물을 지나는 바람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우리도 이런 마음의 자세를 지녀야한다”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해 업장 소멸하고 올 한해 편안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진우 스님은 법문 후 경내 범종루로 자리를 옮겨 새해맞이 타종의식을 가졌다. 이후 만발공양간에서 대중들과 떡국 공양을 가졌다. 조계사는 이날 500인분의 떡국을 준비했다.

임은호 기자

삼론종 제11대 총무원장 남륜 스님 선출

만장일치로 결의…종회의장 지경 · 사정원장 지운 스님



대한불교삼론종은 지난해 12월 23일 “제11대 총무원장으로 남륜 스님〈사진〉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11대 총무원장 남륜 스님 선출은 총 21명의 종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종회의장 지경 스님 재임 및 사정원장 지운 스님(충주 정암사) 선출 등도 함께 진행됐다.

삼론종 제11대 총무원장 남륜 스님은 2003년 원광사에서 청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고, 이후 은사 계사로 득도 사미계를 수지했다. 대성 스님을 계사로 2009년 구족계를 받으며 대덕 법계 품수했다.

2004년 동국대 사회교육원을 수료한 남륜 스님은 2006년 대한불교염불종 사회부장을 역임했으며, 2009년 포항 원광사 주지, 옥천사 주지로 활동했다. 또한, 2013년 불교인권위원회 위원 및 삼론종 교육원장으로 재직하며 종단과 사회를 위한 활동에 헌신했다. 이후 2015년 모법연화사 주지, 2020년 삼론종 교리연구원장 등의 직책을 수행하며 불교계에서 두드러진 업적을 남겼다.

남륜 스님은 “삼론종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새로운 총무원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육조정맥선원
www.zenparadise.com

생사해탈을 위한 ‘3년결사안거’ 모집

생사해탈한다는 특달한 각오로
3년 동안 입출퇴를 하지 않고
농선 대원선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면
반드시 3년 안에 내 마음을 찾아
마음이 내가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입방각서 : 3년결사안거 중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의와 불만을 절대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그 어떠한 벌칙도 감수하겠습니다.


1000명 앞에서 좌탈입망하신
전강 전법 대선사

지금 불교계에 스승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농선 대원선사는 현재 90의 연세로, 64년 전인 26살 때부터 120세까지 수명을 정해놓고 사시면서, 간절히 깨닫기를 서원하는 이들을 위해서 직접 죽비를 잡고 내 마음을 찾아 마음이 내가 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기 위하여 ‘3년결사안거’를 단행하고자 하십니다.

농선 대원선사의 법사이신 전강선사는 1000여 명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법상에 올라 법문하신 후, 앉은 자리에서 열반에 드셨고, 은사이신 해인사 인곡선사도 나고 죽음을 자재하셨으며, 농선 대원선사님 지도하에 공부한 제자 소진추, 전대각월 불자님도 좌탈입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생에 반드시 내 마음을 알아 생사해탈한다는 특달한 각오로 3년 동안 입출퇴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농선 대원선사의 지도를 따른다면, 누구라도 승속과 종파를 초월해 입방하여 반드시 마음이 내가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호흡만 끊어지면 내 부모 처자식은 그만두고 내 몸마저도 한 점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참나이겠습니까? 이 생사대사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뜻을 지닌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입방요건 : 나이 (30~60대 남 · 녀) / 정신적, 신체적 건강한 분 / 제출서류 (입방각서, 건강진단서) / 접수기간 2024. 09. 01 ~ 2025. 12. 31 / 문의 010-8670-1445